

“베어벡호 집중력 키워야”

이란전 막판 역습 허용... 아쉬운 1대1 부정확한 크로스 골결정력 부족 원인

킴 베어벡 감독이 한국 축구대표팀의 사령탑을 맡은 뒤 처음 치른 홈경기에서 안타까운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집중력과 골을 만들어 내기 위한 창의적인 전술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한국은 2일 치러진 이란과 2007 아시안컵 예선 3차전에서 후반 인저리타임에 빠 아픈 동점골을 허용하면서 1-1로 비기고 말았다.

지난달 대만과 치른 아시안컵 예선 2차전 원정경기에서 자신의 사령탑 데뷔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베어벡 감독은 내심 홈에서 처음 치르는 A매치에서 ‘승전기’를 부르고 싶었지만 이란의 막판 역습과 수비수 실책에 허를 찔리면서 다잡은 승리를 놓쳤다.

이에 따라 베어벡 감독은 6일 대만과 2007 아시안컵 예선 4차전 홈경기(오후 8시·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국내 축구팬들에게 확실한 승리를 보여줘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92분 잘했다가 1분을 못 지켜 비겼다”는 이영표(토트넘)의 지적대로 한국은 경기 종료 직전 상대의 역습상황을 맞아 수비수 두 명이 이란의 공격수를 가로막았지만 골키퍼와 마지막 ‘의사전담’ 이 되지 않아 통탄의 동점골을 내줬다.

정상적인 플레이였다면 수비수는 상대 공격수의 진로를 방해하고 불은 골문을 비우고 뛰어 나온 골키퍼가 처리했어야 하는 상황. 하지만 한국은 최종 수비에 섰던 김상식(성남)이 뛰어나온 골키퍼 바로 앞에서 불을 컨트롤하다가 실수를 범하면서 동점골의 빌미를 내주고 말았다.

베어벡 감독은 이에 대해 “막판에 집중력이 떨어지며 스스로 어려운 경기를 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날 김상식-김동진(제너트) 중앙 수비수 라인인 경기 내내 상대의 공격을 잘 막아냈

지만 막판에 집중력을 잃고 판단 미스를 하면서 승리를 눈앞에서 날리고 말았다.

공격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설기현(레딩)과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 좌우 측면에서 활발한 크로스를 올렸지만 제대로 된 슈팅으로 연결된 경우가 극히 적었다. 뛰어난 돌파력을 선보였지만 부정확한 크로스과 골결정력의 부족으로 골이 나오지 못했던 것이다.

공격 전개 역시 속도감을 살리지 못해 상대 수비진영이 모두 갖춰진 상황에서 골을 만들려는 힘든 작업을 펼치다 보니 결국 프리킥 상황에서 골을 얻는 다소 ‘비생산적인’ 측면도 보여줬다.

결국 베어벡 감독은 90분 내내 선수들의 집중력을 지켜줄 수 있는 치밀한 선수교체 타이밍과 더불어 공격 속도를 높이기 위한 치밀한 ‘세트 플레이’를 완성해야 하는 숙제를 떠안게 됐다.

이와 함께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보여줬던 홍명보의 역할처럼 선수들이 집중력을 잃고 우왕좌왕하는 상황에서 분위기를 반전시켜줄 수 있는 ‘정신적인 리더’를 하루 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게 축구팬들의 일관된 지적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18번홀 극적인 버디 강지만 생애 첫 우승

신한동해오픈골프 최종

한국프로골프투어의 장타자 강지만(30·동아회원권)이 막판 짜릿한 버디 퍼트로 생애 첫 우승을 일궈냈다.

강지만은 3일 경기 용인 레이크사이드골프장 서코스(파72·7천490야드)에서 열린 신한동해오픈에서 4라운드 합계 19언더파 265타를 쳐 작년 US오픈 우승자인 마이클 캠벨(뉴질랜드)을 1타차로 제치고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프로 7년차에 이룬 생애 첫 우승. 이번 대회는 코스 길이도 크게 늘리고 그린도 까다롭게 세팅됐지만 강지만은 1987년과 작년의 2차례 나왔던 토너먼트레코드(16언더파)를 경신했다. 1999년 프로에 입문한 강지만은 2001년부터 국내 투어에서 활동했으나 작년 KPGA투어챔피언십 공동 2위가 최고 성적이었다.

이날 강지만은 선두로 출발했으나 자신을 앞서간 캠벨을 추격, 15번홀 버디로 공동선

두에 오른 뒤 마지막홀에서 극적인 버디를 잡아 뒤집었다.

강지만은 18번홀(파4)에서 호쾌한 드라이브샷으로 핀과 30m의 거리를 남겨놓은 뒤 두번째 샷을 깃대 2m 남짓한 거리에 붙이면서 우승을 예감한 듯 주먹을 불끈 들어 올렸다.

강지만은 캠벨이 이미 경기를 끝내고 연장전을 준비하면서 그를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보란듯이 버디퍼트를 성공시켰다.

첫날부터 선두권에 포진했던 ‘탱크’ 최경주(36·나이키골프)는 마지막날 7타를 줄였으나 이 대회와는 결국 우승컵과의 인연을 만들지 못했다.

1995년과 작년 모두 연장전에서 패해 준 우승에 머물렀던 최경주는 이날 이글과 버디를 잇따라 속아내면서 11번홀까지 캠벨 등과 함께 공동 선두를 형성하기도 했으나 16번홀(파4)과 17번홀(파3) 버디 퍼트가 어렵게 불발했다.

최경주는 17언더파 271타로 황인춘(32)과 공동 3위를 했다. 최경주는 이번 대회 상



3일 열린 신한동해오픈에서 4라운드 합계 19언더파 265타를 쳐 생애 첫 우승을 차지한 강지만이 우승컵을 들어보고 있다. 금 전액을 강원 인제군의 수재민들에게 기탁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정일미) (이선화)

‘판언니’ 정일미(34·가이골프)와 신인왕 후보 이선화(20·CJ)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스테이트팜클래식 마지막 라운드를 남겨두고 나란히 선두를 1타차로 뒤쫓았다.

정일미는 3일(한국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 레일골프장(파72·6천649야드)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에서 이글 1개와 버디 2개, 보기 2개로 2언더파 70타를 쳐 합계 13언더파 203타로 마리아 요르트(스웨덴·202타)에 1타를 뒤졌다.

이선화는 버디는 4개를 뽑아내고 보기는 1개로 막아 3타를 줄이면서 13언더파의 성적을 적어냈다.

나란히 1타차 선두 추격

LPGA 스테이트팜클래식 3R 13언더...한국 시즌 10승 기대

LPGA 투어에서 편지 만 3년이 다 돼가지만 우승의 기쁨을 누려보지 못한 정일미의 첫 우승이다. 이선화의 시즌 2승이자 신인왕에 빼기를 박는 우승이냐가 관건.

한때 ‘스마일 퀸’으로 불리며 국내 무대를 평정했던 정일미는 2004년 투어에 데뷔해 이 대회 전까지 지금까지 모두 70경기에 출전하며 부지런히 정상을 노크했다.

그러나 41차례 컷 통과에 톱10 입상이 3차례에 그치는 초라한 성적을 냈다.

어쩌다 한 번씩 찾아오는 반짝 상승세는 그 대회가 끝나는 날까지 지속되지 못했고, 최고 성적은 작년 7월 BMO 캐나다오픈의 공동 3위였다.

이선화가 우승을 한다면 신인왕 획득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된다. 둘 중 누가 우승을 하든 한국 군단의 시즌 10승도 달성하게

된다.

‘코리안 저격수’ 크리스티 커(미국)가 합계 12언더파 204타로 공동 4위에 진입한 가운데 배경은(21·CJ)도 4타를 줄여 합계 11언더파 205타로 6위에 포진, 우승 사정권에 들었다.

‘골프 여제’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과 ‘멕시코 여걸’ 로레나 오초아는 합계 9언더파 207타로 선두와 5타차 공동 9위지만 결코 우승과 거리가 멀다고 볼 수는 없는 존재들이다.

한희원(28·힐라코리아)은 합계 6언더파 210타로 김주미(22·하이트맥주), 김영(26·신세계) 등과 함께 공동 22위에 들었고 이지영(21·하이마트)은 합계 5언더파 211타로 공동 30위로 밀렸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빙상 요정’ 김연아 환상 연기

3일 오후 서울 잠실 롯데월드 아이스링크에서 열린 ‘2006 현대카드 ‘슈퍼매치 2006 김연아 쇼’에서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선수가 시범을 보이고 있다. ‘2006 현대카드 슈퍼매치 슈퍼스타대회’는 다음달 16, 17일 서울 목동링크에서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타이거 우즈가 3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TPC에서 열린 PGA 투어 도이체방크 챔피언십 2라운드 13번홀에서 티샷을 한 후 고개를 숙인채 페어웨이로 걸어가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강풍에 고개숙인 우즈

4언더 공동 3위로 ‘미끌’ 도이체방크챔피언십 2R 5개 대회 연속 우승을 노리는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거센 바람에 흔들리며 선두 자리를 내줬다.

우즈는 3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노턴의 보스턴TPC(파71·7천415야드)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투어 도이체방크챔피언십 2라운드에서 우즈는 버디 2개에 보기를 3개나 곁들이며 1오버파 72타를 치는 부진을 면치 못했다.

최근 4개 대회에서 잇따라 우승을 차지한 우즈가 오버파 스코어를 적어낸 것은 22라운드만이다.

1라운드에서 5언더파 66타를 쳐 단독 선두로 나섰던 우즈는 중간합계 4언더파 138타가 되면서 저스틴 로즈(잉글랜드), 로버트 앨런 비(호주·이상 136타)에 2타 뒤진 공동3위로 내려 앉았다.

시속 50km에 육박하는 엄청난 강풍이 불어 닥친 보스턴TPC에서 우즈는 아이언샷 그린 적중률이 44%에 지나지 않을만큼 고전했다. 그나마 18홀을 27개로 막아낸 컴퓨터 퍼팅 덕에 더 이상 타수를 잃는 것을 막는데 만족해야 할 정도였다. /최재호기자 lion@